

글. 이종호 Lee, Jong-ho

시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 북부지역 건축사회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워크숍 및 건축탐방을

(강원도 고성, 양구 일원)

다녀와서

A Review of Seoul Northern Region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s Workshop and Observation

‘서울 북부지역 건축사회 워크숍 및 건축탐방’은 지역 건축사들끼리 공동체 의식도 느끼고 건축 현안에 대한 토론과 우리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벌써 7년째 계속되고 있다. 금년에는 성북구건축사회 주관 하에 지난 5월 30일~31일,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에 있는 금강산 콘도에 숙소를 정하고 화진포의 성(김일성 별장)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을 둘러보았다.

두 건물은 공교롭게도 화진포의 푸른 호수를 사이에 두고 먼발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바닷가에 위치한 김일성 별장은 전망 좋은 해안 절벽 위에 2층 석조 건물이 제법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송림 속에 자리하고 있다. 독일 건축사 H.Weber의 설계로 1938년에 건립(외국인 선교사 예배당)되어 한국전쟁 이전 김일성 가족의 하계 휴양지로 사용하던 것을 복원하여 2005년 이후 역사 안보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이승만 대통령 별장은 1954년에 신축한 단층 건물로 1999년에 복원하고 2007년에 보수한 것인데,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의 별장치고는 너무 규모가 작고 소박하다.

숙소인 금강산 콘도는 오래 전 금강산 육로관광을 갈 때 숙박했던 곳이라 낯설지 않았다. 시설은 낡았지만 해변 풍광은 수려한 곳이다. 대진항 횃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와 워크숍 시간을 가졌다. 특정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건축(설계 및 감리) 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방법 등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이튿날 통일전망대 안보관광을 마치고 양구로 향했다. 오후 1시가 지나서야 양구의 맛집으로 소문난 광치막국수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이번 일정의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인 박수근 미



단체 사진(앞줄 가운데가 필자)



금강산 콘도 전경

술관(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033-480-2655)으로 향했다.

박수근 미술관을 둘러보고

뜨거운 햇볕이 짹짹 내려찍는 가운데(금년 들어 가장 더운 날씨) 미술관 입구에 당도했다. 이런 한적한 시골에 우리나라 미술계 최고 화가의 미술관이 있다는 게 우선 놀랍다. 더구나 올해는 박수근 화백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국민화가로 불리며 한국의 밀레라는 평을 받고 있는 미석 박수근 화백은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린다.' 라는 말 씀과 함께 진솔하고 담백한 화풍의 작품을 여럿 남기셨다. 이번에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박수근 화백의 전시 작품

선생의 작품은 단순한 형태와 선묘를 이용하여 대상의 본질을 부각시키고, 서양화 기법을 통해 우리 민족적 정서를 거친 화강암과 같은 재질감으로 표현해냄으로써 한국적인 미의 전형을 이루어냈다. 우리 민족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따듯한 시선으로 그려냈던 그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구현한 서민화가이자 20세기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의 미술 작품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 미술관 건물 자체가 또한 예사롭지 않게 설계된 작품이다.

2002년 10월 25일 박수근 선생의 생가 터에 건립된 박수근 미술관은 작가의 작품세계와 예술혼을 기리는 동시에 지역의 대



박수근 미술관 전경

표적인 문화공간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필자와는 동명이인으로 얼마 전 사망한 한국예술종합학교故이종호 교수의 대표작인 것이다. 건축사자격은 없지만 건축(설계)계에선 꽤 지명도가 있는 분이다. 이름이 같아 전화가 서로 잘못 걸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며, 언젠가 전화 상으로 인사를 나누고 한번 만나보기로 했었는데 아쉽게도 먼저 세상을 뜨고야 말았다.

그래서 나오서는 더욱 더 친근함과 호감이 가는 건축물인지라 미술작품과 함께 건물 내외부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여느 일반 건물, 미술관과는 배치방법, 동선부터가 달랐다. 한 채의 큰 건물이 아닌 여러 채의 작은 건물들이 마치 하늘에서 살포시 내려앉은 듯 자연의 품안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박 화백의 그림 '나무'처럼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한 건축과 미술이 서로 어울려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 했다. 둘 다 이 세상 분이 아니지만 바로 내 옆에서 뭔가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예술은 위대하다.



박수근 동상

소중한 작품 하나하나를 감상하고 박 화백의 묘소에도 혼자 올라가 참배를 했다. 산의 용맥이 힘차게 내려온 좋은 자리에 잠들어 계신다. 그리고 동상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제2전시관으로 갔다. 제1전시관과는 서로 언덕을 두고 나뉘어 있는데, 나눔으로써 안과 밖이 생기고, 안과 밖의 관계는 교류를 낳는다. 이렇게 별려 놓으니 조금은 불편하지만(오히려 기분 좋은 불편함) 길이 생기고 길이 생겨야 만남의 가능성이 있다. 꾸밈 없는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의 폭 좁은 복도와 좁은 돌음 계단 등 겸손한 내부 시설 또한 박수근 화백의 단순하고 소박한 그림을 닮았다. 이처럼 건축과 미술의 아름다운 만남을 뒤로 하고 귀경길에 오르며 건축과 미술(예술)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제2전시관

건축과 미술에 대해 생각해 보다

건축은 예술인가?

예술은 'Art' 이고 건축은 'Architecture' 다. 왜 모두 A로 시작할까? 둘은 뿌리가 같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은 예술, 그것도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시와 음악, 그리고 미술이 순수예술인 것은 작가 자신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한 때는 건축도 예술(미술)의 장르에 속했다. 미적 작품성이 주로 강조되었다. 그런데 현대건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건축주(사용자)는 실용성과 경제성을 내세우고 사회, 정부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설계자인 건축사는 예술성을 추구한다. 건축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탄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예술이나 종합예술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건축과 미술의 관계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회화, 조각, 공예품을 건축을 장식하는 부수적 요소로 간주했다. 건축사는 어느 벽에 그림이 들어가고 어느 자리에 조각이 배치되는지 염두에 두면서 건물을 설계한다. 당연히 건물 착공과 동시에 작가에게 회화와 조각 작품을 주문한다. 이런 그림과 건축의 일체화 현상은 르네상스 시대(16세기 말~18세기 초)에 절정을 이룬다. 화가들은 교회당은 물론 귀족 저택의 천장과 벽을 현실공간과 연결된 것처럼 묘사했다. 르네상스 이후에는 벽화 대신 액자로 장식된 그림이 벽화를 대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건물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문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조각도 그렇다. 건물 로비나 복도를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는 건물의 유기적 구성요소로 활용되었다. 때로는 조각을 건물 외벽이나 지붕에 직접적으로 결합시키기도 한다.

서양과는 대조적으로 동양에서는 건축과 미술을 별개로 여겼다. 종교 건축물과 궁궐 건축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 특히 유가의 건축물은 검소하고 소박한 기풍을 중시했기 때문에 집안 내부를 그림과 조각으로 요란하게 치장하지 않았다. 장식용보다는 집안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벽사용 그림과 글씨를 집 안팎에 계절마다 한시적으로 붙였다.

건물을 치장하지 않다 보니 서양에 비해 미술과 건축의 유기적 상관관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에서 건축과 미술이 각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이제는 서구적 삶과 건축이 우리네 일상을 지배한 지 한 세기가 흘렀다. 건축-미술의 '한 몸 문화권'에 편입된 것이다. 삶과 미술의 친화 관계는 갈수록 가속화되서 건축과 미술의 상호 침투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조각 같은 외관을 가진 빌딩, 건축 같은 조각 작품은 너무도 흔해 더 이상 화젯거리도 아니다. 주어진 공간에 맞게 설치 작품을 제작하는 장소 특정적 미술도 그런 현상의 일부다.

이제 미술과 건축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기능성을 띠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뿐이다. 주거용, 사무용, 레저용 등 말이다. 다행인 것은 그런 상호침투현상이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예술적인 삶'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신문 정석범 문화전문기자의 CEO를 위한 미술산책에서 인용)

시대보다 한 걸음 앞서가면 비즈니스고, 두 걸음 앞서가면 혁명이고, 세 걸음 앞서가면 예술이란 말이 있다. 건축을 예술로 생각하는 사람은 시대보다 세 걸음 앞서가야 한다. ▣